

# 다시 달리는 현대·기아차, 美·中 등 글로벌 회복세

8월 미국 판매 전년比 3.5% 증가  
베이징현대 상반기 흑자전환 성공  
러시아·중동·아프리카 등서 선전  
하반기 신차 출시… 실적 기대감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와 미국 시장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현대·기아자동차가 모처럼 기지개를 켰다. 현대·기아차가 수요 감소 추세에 접어든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리며 하반기 실적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8월 미국 시장에서 11만 1406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현대차는 5만7542대(제네시스 포함)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6% 늘었다. 범인 판매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30% 줄어든 반면, 소매 판매는 12% 증가했다.

차종별로 보면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가 1만5475대, 투싼 1만1559대, 싼타페 1만1347대 등을 기록했다. 쏘나타는 13% 감소한 9457대였다. 북미시장의 SUV 대표 모델 투싼은 1만1559대가 판매돼 18개월 연속 월간 최다판매 기록을 세웠다.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새롭게 선보인 콤팩트 SUV 코나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부진했던 현대차의 미국 판매 증가는 제너럴모터스(GM)와 도요타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전체 산업 수요가 148만2000대로 0.2% 하락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도 미국에서 8월 5만3864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

K5(현지명 옵티마)가 전년 동기 대비 56.6%나 증가해 판매 신장세를 주도했다. SUV 판매를 이끄는 쏘렌토가 34.3% 증가했고 스포티지도 8.7% 늘었다.

지난 8월 미국 전체 자동차 수요는 148만1973대로 지난해보다 0.2% 감소했다. 올 누적 수요는 1148만대로 지난해보다 1.1% 늘었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상승세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신흥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중국 시장에서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다. 베이징현대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545억원으로 2100억원 대 순손실을 기록한 지난해 실적 악화를 딛고 흑자 전환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38만98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사드 충

격을 소폭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아차도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전년 대비 32.9% 증가한 17만232대를 팔았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여전히 167억원의 순손실을 입었지만, 지난 상반기 2164억 원의 적자보다는 큰 폭으로 줄었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는 러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 시장에서 고른 판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조수홍 연구원은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현대·기아차는 하반기부터 글로벌 신차 출시와 함께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며 “미국,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 및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신차판매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重, 친환경 고효율선박 시장 선도

에너지저감장치 적용 본격화  
선박 연료 효율 8% 향상 기대

삼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친환경 에너지 저감 장치(ESD)로 친환경 고효율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선박의 연료 효율을 최대 8%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글로벌 선사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세계 2위 컨테이너선사인 MSC로부터 수주한 2만 3000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셀시어스탱커로부터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에는 공기윤활장치인 ‘세이버 에어(SAVER Air)’가 장착된다.

세이버 에어는 선체 표면과 바닷물 사이에 얇은 공기막을 형성시켜 선체 표면에 바닷물이 직접 닿을 때보다 마찰을 줄여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선박의 형태, 속도, 파도·바람 등 운항 지역의 특성까지 고려해 연료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합한 맞춤형 ‘삼성 ESD 패키지’를 내놨다. ES



삼성중공업이 선박의 운항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세이버 핀(SAVER Fin)이 선박 하부에 설치돼 있다. /삼성중공업

D 패키지는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 장치들을 시뮬레이션해 찾아낸 최적화된 조합이다. 이를 통해 최대 8%의 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삼성중공업 측 설명이다.

최근 글로벌 해운업계들은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선박의 CO<sub>2</sub> 배출량과 운항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창 모색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대덕 연구단지내 선박해양연구센터에 길이 400m의 세계 최대 상업용 예인수조와 공동수조를 비롯한 각종 시험설비를 활용해 2000년대 이후 연료절감 기술 개발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앞서 세이버 핀, 러더 벌브 등 모두 5종류의 ESD를 독자 기술을 개발해 자체 제작선박에 적용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의 대표적 ESD인 세이버 핀은 선박 외판에 장착하여 선체 주변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이며, 이를 통해 연비 개선은 물론 선체 진동도 크게 감소시켜 현재까지 200척 이상의 선박에 장착함으로써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 외에도 프로펠러 앞뒤 물의 흐름을 제어해 선박의 추진력을 향상시키는 러더 벌브, 세이버 스테이터 및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해 운항 중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는 사이드 캡 프로텍터 등의 ESD도 많은 선박에 적용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스마트 육아법’ 공개

LG유플러스 토크콘서트 개최

LG유플러스는 인터넷TV(IPTV) 유아 서비스 플랫폼 ‘U+tv 아이들나라 2.0’ 출시를 기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육아 비법’을 주제로 한 강연회 ‘아이들나라 토크콘서트’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아이들나라 토크콘서트는 오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8일 강연은 배우 이범수의 아내 이윤진 통역사가 ‘워킹 맘의 똑똑한 영어 학습법’을 소개한다. 자녀의 효과적인 영어 습득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적절한 학습방법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인 학습법으로는 AI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교육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15일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연사로 나선다. 김경일 교수는 ‘4차 산업 시



/LG유플러스

대, 심리학의 지혜를 읽다!’라는 주제로 독서의 필요성과 U+tv 아이들나라 2.0을 활용한 스마트한 학습법에 대해 강연한다.

마지막 강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가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역량과 노발달에 따른 연령별 교육법도 설명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육아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강연을 진행한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토크 쇼’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LG유플러스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고객들도 강연을 볼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강연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

## ‘실무자가 직접 뽑는다’… 현업 주도 채용

현대모비스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현대모비스가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현업주도의 채용을 강화하고 이번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현업팀이 채용의 주체가 되어 지원자들의 서류를 직접 검토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면접방식도 새롭게 개발하게 했다. 면접방식을 채용직무 분야에 맞춰 차별화해 각 지원자의 전문성을 칠자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서류심사 단계에서부터 현업팀이 주관하게 됨에 따라 지원자들은 일반적 스펙 기재가 아닌 지원 직무에 대한 본인의 경쟁력이나 경험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또 맞춤형 면접이 진행되는 면접장에서도 해당 직무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스토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대모비스는 현업 중심의 채용방식으로 변화를 통해 현업팀은 물론, 지원자들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업팀 차원에서는 전문성이 높고, 직무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직접 뽑아 온라인 교육기간 없이도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지원자로서 다른 부가적인 스펙을 쌓기보다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집중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장



현대모비스가 맞춤형 인재 채용을 위해 전국 대학교에 찾아가 채용 정보를 공유하는 캠퍼스 리쿠르팅을 진행하고 있다.

점이 있다.

현대모비스는 실전형 맞춤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채용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실제로 2015년에는 소프트웨어 직군을 신설해 별도 테스트를 했으며, 이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연구개발 직군을 5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직군별 우대사항이나 상세 업무 등을 사전에 공개한 바 있다. 모두 지원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채용실험의 일환이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10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신청받고 있으며, 이달 말 서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 후에는 10월 초 현대차그룹 인적성검사(HMAT), 10월 하순 1차 면접, 11월 하순 2차 면접 순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 투구 움직임까지 생생하게 ‘AI 분석’

SK브로드밴드 ‘옥수수’

SK브로드밴드는 자사 모바일 동영상 OTT 서비스 ‘옥수수’를 통해 이달 말까지 국내 프로야구 경기의 실시간 세부 기록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감상할 수 있는 ‘AI 데이터 분석 방송’ 생중계 채널을 SP OTV와 제휴해 오픈한다고 5일 밝혔다.

옥수수의 프로야구 ‘AI 데이터 분석 방송’ 생중계는 투수와 타자의 타구 움직임을 트래킹해 시청 중인 경기 장면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뒤 데이터로 제공한다. 투수가 던지는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싱커 등 구종과 공의 회전수, 속도 등을 그래픽과 데이터로 구현한



다. 초구부터 마지막 승부구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함께 타자의 타격 발사각과 공의 속도, 체공시간, 비거리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그래픽으로 제공한다. 타격 시 수비가 시프트하는 위치와 이동 동선도 그래픽으로 볼 수 있다. /김나인 기자